

네팔, 惡化一路를 걷는 내전상황

□ 최근 내전 동향

- 1996년 입헌군주제도 종식과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며 시작된 마오이스트(Maoist)¹⁾들의 인민전쟁(People's War)은 2001년 8월 정부와의 휴전협상으로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11월 마오이스트들의 일방적 휴전협정 파기로 내전이 재개되었음.
- 2002년 5월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2차례의 연장조치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네팔의 내전상황은 정부가 11월 예정된 총선의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8월 28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후, 마오이스트들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9월 8일, 계엄해제 후 처음으로 마오이스트들이 신들리(Shindhuli)지역의 경찰서를 습격하여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3일에도 정부군과 마오이스트들과의 무혈충돌로 90여 명의 사상자 발생하는 등 계엄해제 후 현재까지만 약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계엄 재선포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마오이스트들은 총선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11월 총선**

1)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장한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로 1966년에 조직되어 1996년에 인민전쟁(People's War)을 선포함. 초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인민전쟁은 현재 전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이며, 이러한 Maoist들과 정부군과의 유혈충돌로 지금까지 약 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의 원활한 실시가 불투명한 상태임.

- 또한, 집권당인 नेपाल의회당(Nepali Congress : NC)이 Deuba 총리 지지세력과 전 총리인 Koirala 당수 지지세력으로 분열되어 향후 총선 실시까지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नेपाल의 정치·사회적 불안은 1990년 민주주의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짐.

<표> **네팔 내전 최근상황 일지**

구 분	내 용
2001. 11. 26	비상계엄령 선포
2002. 02. 21	비상계엄령 1차 연장
2002. 05. 09	마오이스트들의 일방적 휴전 선포
2002. 05. 10	정부측에서 신뢰성 문제로 휴전제의 거부
2002. 05. 27	비상계엄령 2차 연장
2002. 08. 28	11월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상계엄령 해제
2002. 09. 08	마오이스트들의 공격 재개
2002. 09. 16	마오이스트들 주도의 총파업 실시
2002. 11. 13	네팔 총선 예정

자료 : 필자정리

□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경제불안 심화

- 반군과의 내전 심화는 특히 नेपाल의 서비스 산업(GDP대비 40.9%)의 대표부문인 관광산업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침.
 - 금년 7월까지 입국한 관광객수는 전년동기대비 37%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외화수입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 위축과 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네팔 통계청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8년 간 최저치인 0.8%로 전망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